



## ‘K-웹툰, 세로로 읽는 이야기로 일본 독자 만난다’ 콘진원, 도쿄서 ‘2026 K-웹툰 전시’ 개최

-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우수 K-웹툰 전시 개최
- 월드 웹툰 어워즈 수상작 포함, <유미의 세포들> 등 우수 한국 웹툰 20여 편 소개
- 1월 30일, 웹툰 <지옥> 최규석 작가 토크쇼 등 개막 행사 통해 일본 독자와 교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한국 웹툰의 창작성과 산업적 가치를 일본 현지에 소개하기 위해 ‘세로로 읽는 이야기: 2026 K-웹툰 전시(縦に読む物語 : K-WEBTOON展)’를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 M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 내 웹툰 독자와 콘텐츠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웹툰의 서사 구조와 제작 방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교류 전시로, ‘월드 웹툰 어워즈 2025 수상작’ 11편을 포함해 총 20여 편의 주요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 ◆ <유미의 세포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등 한국 웹툰 대표작 한자리에

전시에는 ▲지옥 ▲유미의 세포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작품들이 참여한다. 각 작품은 스토리 전개 방식과 캐릭터 구성, 연출 기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일본 관람객이 웹툰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월드 웹툰 어워즈 2025’ 수상작 전시 구역에서는 ▲전지적 독자 시점 ▲마루는 강쥐 ▲미래의 골동품 가게 ▲괴력 난신 등 작품 전시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은 K-웹툰의 주요 성과와 기록을 함께 소개해, K-콘텐츠의 성장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를 넘어, 웹툰 제작 과정과 ‘세로로 읽는 이야기’라는 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작가 인터뷰 영상, 캐릭터 일러스트 전시 등을 통해 웹툰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쉽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했다. 이외에도 캐릭터 배지 및 엽서 컬러링, 즉석 사진기 체험 등 다양한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기념 포스터 및 엽서 등도 제공해 전시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 1월 30일, 웹툰 <지옥> 최규석 작가 토크쇼 등 개막 행사를 통해 한·일 교류 확대

전시 개막일인 1월 30일에는 웹툰 작가 최규석과의 토크쇼를 포함한 개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규석 작가는 <지옥>, <송곳>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로, 한국 웹툰의 서사적 깊이와 현실성을 보여준 대표 창작자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작품 제작 과정과 웹툰 창작 철학 등을 주제로 일본 독자 및 콘텐츠산업 관계자와 소통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일 콘텐츠 교류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진원 엄윤상 콘텐츠수출본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웹툰의 이야기 구조와 제작 방식을 일본 현지 독자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현지 기반의 산업 교류와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 하성환 팀장, 홍보담당 조은경 팀장 (81-3-3357-59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 K-웹툰 전시 도교' 포스터 (1)~(2)

The poster is a vertical composition featuring four distinct panels. The leftmost panel has a cyan background and shows a cartoon girl with blonde hair and large eyes in the foreground, with a smaller character in a blue hooded suit floating above her. The second panel from the left has a red background and depicts a black silhouette of a person standing on a grey, rocky outcrop. The third panel is a white vertical strip containing the large, bold Japanese text '縦に読む物語' (A story read vertically). The rightmost panel has a blue background and shows a group of anime-style male characters in school uniforms. At the bottom of the poster, the text 'K-WEBTOON 展' is written in large black characters. To the right of this, the exhibition dates '2026年1月30日(金)-2月28日(土)' and hours '開館時間 10時-17時 休館日 祝日・日曜日' are listed. Below that, the venue '駐日韓国文化院ギャラリーMI' and address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are provided.

2026年1月30日(金)-2月28日(土)  
開館時間 10時-17時 休館日 祝日・日曜日  
駐日韓国文化院ギャラリーMI  
〒160-0004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WEBTOON 展**

사진 1. 'K-Webtoon展 도쿄' 포스터(1)



# K-WEBTOON 展

## 展示

### PART 1. 韓国代表WEBTOON

『ユミの細胞たち』  
イ・ドンゴン

『地獄』  
ヨン・サンホ / チェ・ギュソク

『デビューできないと死ぬ病気にかかってしまいました』  
Jangjin / SOHEUN / DS.Back

### PART 2. ロマン스・ファンタジーWEBTOON

『悪党一家を更生させたら』  
ramji / Jerry Kim

『この結婚はどうせうまくいかない』  
CHACHA KIM / Cheong-gwa / CHOKAM

『あなた!私、ストライキします』  
Ko Eun Chae / Yeseul

『お父さん、私この結婚イヤです!』  
Roal / Yuri / Hong Heesu / MYRRHA

## 作家トーク



チェ・ギュソク『地獄』

2026年1月30日(金) 17:30

1998年、ソウル文化社の新人漫画公募展を通じてデビュー。

以降、社会や人間を鋭く捉える世界観で  
継続的に注目を集めてきた。

代表作に『恐竜ドゥリに捧げる悲しいオマージュ』、  
『湿地生態報告書』、『大韓民国原住民』、『100℃』、  
『泣くにはちょっと微妙』、『今はもうない物語』、  
『ソングッ(鐘)』などがある。

ソウル国際漫画・アニメーションフェスティバル短編賞、  
大韓民国漫画大賞優秀賞、「今年の韓国漫画」、  
富川漫画大賞、ワールド・ウェブトゥーン・アワーズ本賞など、  
韓国を代表する主要な漫画賞を受賞している。



イ・ドンゴン『ユミの細胞たち』

2026年2月21日(土) 15:00

ウェブトゥーン『甘い人生』でデビュー。

日常の感情や人間関係を繊細な観察力で描き、  
誰もが共感できる普遍的な感情と、  
一人ひとりの独自性をマンガ的な表現で描き出すことを  
特徴とする作家である。

代表作に『甘い人生』、『ユミの細胞たち』、  
『ジョジョコミックス』があり、特に『ユミの細胞たち』は  
NAVERで連載され高い人気を博し、  
2016年に「今年の韓国漫画」に選定された。

# 縦に読む物語

（縦に読む物語）K-Webtoon展は、日本でも多くの読者を獲得している韓国発デジタルマンガウェブトゥーンが持つ文化的価値と表現の広がりをご紹介する展示会です。近年では日本語翻訳や配信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日本市場にも定着し、映像化・アニメ化・ゲーム化などさまざまなメディアへと展開しながら存在感を高めています。本展では、韓国を代表するウェブトゥーン作家3作品を中心に紹介するとともに、日本でも人気の高いジャンルであるロマンス・ファンタジーに焦点を当てたロマンス・ファンタジーゾーンを展開します。物語の世界観やキャラクターの魅力を感じていただくと、今後の可能性を日本の読者に向けて発信します。